

1번

제시문 (나)의 언어 현상은 축약의 관점에서 형식 중심과 내용 중심의 축약으로 분류가 된다. 두 가지 모두 쓰거나 읽는 시간을 단축시켜 효율성을 높이고자 단어들을 축약했다. 형식 중심의 축약은 다시, 발음나는대로 쓴, 문법을 무시하는 축약과 말의 일부를 발췌해 간단히 만든 축약으로 나뉜다. '시러, 마자, 겨머안' 같은 예가 발음나는대로 쓴 단어들이다. 자음을 발췌한 'ㄴㄱ, ㅇㅇ'과 같은 예와 '솔대, 강추' 등과 같은 음절을 발췌한 예는 말의 일부를 발췌한 것들이다. 또한 문법 무시와, 발췌를 합친 '글쿤' 등의 단어도 존재한다. 이들과 달리 내용 중심의 축약은 대표성을 띄는 단어와 사람 또는 물건을 연결해, 비유의 방식으로 만든 단어이다. '신생아남, 운도녀, 등골 백팩'과 같은 단어들은 신생아의 특성, 운동화 신는 특성, 등골이 휘어질 만큼 힘든 특성을 이용한 단어들이다.

이들을 제시문 (가-1)의 논지를 활용해 평가해보면, 제시문 (나)는 세대에 따라 다른 평가가 이루어진다. 10, 20대 세대의 경우에는 (나)가 사회 규범을 지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신생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에서 (나)의 단어들은 지배적 규범이다. 모두가 신생어를 공유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면 불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30,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나)의 단어들은 하위 문화일 뿐, 공유성이 존재하지 않기에 사회 규범이 아니다. (나)의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 규범을 지키지 않는 일이고, 사회 규범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와 달리, (가-2)의 논지를 활용해 (나)를 평가해보면, 세대와 무관하게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어떤 세대이든 신생어라는 개념은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른 행동이다. 기존과 다른 생각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회적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온다. (나)의 새로운 조합의 단어들은 기존의 단어들과는 다른, 새로운 단어이기에 (가-2)는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번

사회규범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다)를 보면, 사회규범의 고정성, 변동성, 특수성, 확산성을 보여준다. 한국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마약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타 나라들은 진보 또는 보수로 사회적 인식과 규범이 변동했다. 네덜란드는 진보에서 보수로, 미국은 보수에서 진보적 관점으로 사회의 인식이 변한 덕에 마약을 불법화시키거나 합법화시켰다. 이로 보면, 동시대라 하더라도 사회의 인식에 따라 마약의 불·합법이 결정된다. 이는 사회규범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들의 마약의 합법화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으로 보아, 사회규범의 확산성도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제시문 (라)에서 제시된 A국가와 B국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A국가는 사법 시험을 보는 것이 남성 위주라는 인식에서 여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 1999년에 17.2%의 여성 비율에서 2008년에는 38%의 비율로 약 2배 증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A국가는 사회의 규범적 인식이 변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B국가는 1999년도와 2008년의 여성 비율 차이가 전혀 나지 않고 있다. 이 시기 사이에는 변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B국가의 사회규범은 고정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1999년도의 두 국가 사법 시험 여성 비율의 차이를 통해 지역에 따라 사회규범의 특수성이 존재함도 파악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무조건 진보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의 인식에 따라 규범이 변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A국가와 B국가가 인접해 있었다면 A국가의 규범의 변동이 B국가의 영향을 받았다는 추론도 이끌어낼 수 있다. 사회규범의 확산성에 따라 결국 2008년에는 두 국가의 사회규범이 같아진 것이다. 이로 볼 때, A, B국의 가장 큰 차이는 사회규범의 변동 유무라고 말할 수 있다.